북한 지역 문해 통계의 시기별 변화

전정길 |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 연구원 | jg.jeon@kdi.re.kr

문해 수준은 이전 시기 교육·사회 인프라가 누적된 결과이자 이후 국가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본 원고는 북한 지역의 문해 통계를 식민지 시기부터 최근까지 시기별로 살펴본다.

Ⅰ. 식민지 시기의 북한 지역 문해 통계

식민지 시기 문해율을 다루는 자료는 사실상 1930년 조선총독부 국세조사[1] 자료에 주로 의존한다. 조선에서 국세조사는 1925년, 1930년, 1935년, 1939년, 1940년 다섯 차례 실시되었으나 문해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30년 조사뿐이었기 때문이다.[2] 조선총독부(1930)에 따르면, 총독부는 면마다 학교를 하나씩 세우는 정책(一面一校主義)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시점에 읽고 쓰는 정도로 조선인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자 문해 항목을 삽입하였다. 조사 항목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목에 '읽고 쓰는 정도'를 추가한 것이었는데, 이 문해 여부는 시험으로 측정하지 않고,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세대원 전원에 대해 신고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파악되었다. 국세조사는 문해 정도를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자',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자', '일본어만 읽고 쓸 수 있는 자', '둘 다 읽고 쓰지 못하는 자'의 네 범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표 1〉과 〈표 2〉에 따르면, 당시 총인구 2,105만 8,305명 중 조선인은 2,043만 8,108명,

1) 양진아(2023)에 따르면 '국세조사'는 일본이 서양의 인구통계제도를 도입하면서 센서스(census)를 번역하여 사용한 용어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2) 원청연(2026).

일본인은 52만 7,016명이었다. 그중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42만 840명(약 6.7%),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315만 9,738명(약 15.0%), 일본어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39만 5,571명(약 1.9%)이었다. 그리고 둘 다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은 1,608만 2,156명(약 76.4%)으로 4분의 3을 넘었다. 현재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즉 이북 5개 도[3]의 조선인만 보면 한글과 일본어 어느 쪽도 읽고 쓰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비문해율)은 약 70~77%로, 모두 조선인 전국 수준(약 77.7%)보다 낮았다. 도별로는 평안남도(약 69.9%)가 가장 낮았고, 평안북도(약 73.2%), 황해도와 함경북도(각각 약 75.1%)가 뒤를 이었으며, 함경남도(약 77.2%)가 가장 높았다. 최고와 최저 도 간 격차는 약 7.2%p였다.

이 조사에서는 두 언어가 교차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북 5개 도에서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조선인은 51만 9,261명으로 이 지역 조선인의 약 7.9%였고, 이는 전국(약 6.8%)보다 높았다. 도별로는 약 6.2%(황해도)에서 약 9.8%(함경북도)까지 분포하였다. 반대로 이북 5개 도의 일본인(14만 6,149명, 이 지역 인구의 약 2.2%)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만 83명(약 6.9%)이었고, 한글만 가능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인 중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도별로 약 5.1%(함경북도)에서 약 12.5%(평안북도)까지 분포해 있었다. 〈표 1〉과 〈표 2〉에는 아직 글을 배울 나이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인구(0~5세)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보고서의 연령별 표(〈표 3〉과 〈표 4〉)로 6세 이상만 다시 계산하면, 1930년 이북 5개 도의 6세 이상 조선인 비문해율은 약 68.1%로 전국(약 72.6%)보다 약 4.5%p 낮았다. 다만 이러한 격차는 대부분 남성에게서 나타났다. 이북 5개 도 남성의 비문해율은 약 45.5%로 전국 남성(약 55.6%)보다 약 10.1%p 낮았지만, 여성은 약 91.5%로 전국 여성(약 90.2%) 대비 오히려 약 1.3%p 높았다. 1930년 이북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문해 수준은 주로 남성의 문해율에 힘입은 것이었고, 여성 대부분이 한글과 일본어를 읽고 쓰지 못하였다. 소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지역 간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Becker and Won(2024)에 따르면 읍면(town)별로 한글 문해율은 평균 약 20.9%(남성 약 34.4%, 여성 약 7.0%)였다.[4]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진주(약 45.9%)였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남면(약 6.5%)으로 지역 간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3) 국세조사는 1954년 10월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분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황해도'로 조사되었고, 현재 북한 지역 가운데 옛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북부는 이북 5개 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4) 이는 읍면 단위의 값을 평균한 것으로, 조선총독부(1930)가 읽고 쓰는 정도의 비율을 전국 총인구 합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는 산출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표 1〉 1930년 국세조사 문해 정도별 인구 — 전국, 이북 5개 도

(단위: 명)

구분	지역	총인구			한글·일본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다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다			일본어만 읽고 쓸 수 있다			한글·일본어 모두 불가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체	전국	21,058,305	10,763,679	10,294,626	1,420,840	1,223,528	197,312	3,159,738	2,554,082	605,656	395,571	215,818	179,753	16,082,156	6,770,251	9,311,905
	황해도	1,523,523	769,718	753,805	93,092	80,529	12,563	280,953	243,309	37,644	12,667	6,657	6,010	1,136,811	439,223	697,588
	평안남도	1,331,705	673,237	658,468	121,455	103,034	18,421	268,356	222,027	46,329	25,473	14,214	11,259	916,421	333,962	582,459
	평안북도	1,562,791	800,131	762,660	111,541	98,939	12,602	298,459	257,788	40,671	13,986	7,697	6,289	1,138,805	435,707	703,098
	함경남도	1,578,491	818,222	760,269	130,434	115,293	15,141	220,873	201,724	19,149	29,973	18,026	11,947	1,197,211	483,179	714,032
	함경북도	745,124	390,487	354,637	70,856	61,888	8,968	105,643	93,939	11,704	27,437	18,137	9,300	541,188	216,523	324,665
조선인	전국	20,438,108	10,398,889	10,039,219	1,387,276	1,195,461	191,815	3,156,408	2,551,077	605,331	6,297	5,070	1,227	15,888,127	6,647,281	9,240,846
	황해도	1,499,643	755,210	744,433	91,795	79,428	12,367	280,743	243,108	37,635	545	465	80	1,126,560	432,209	694,351
	평안남도	1,288,804	646,987	641,817	119,133	101,053	18,080	268,032	221,753	46,279	542	377	165	901,097	323,804	577,293
	평안북도	1,519,037	769,836	749,201	108,968	96,659	12,309	298,068	257,424	40,644	525	449	76	1,111,476	415,304	696,172
	함경남도	1,527,975	785,311	742,664	128,029	113,206	14,823	220,365	201,242	19,123	672	532	140	1,178,909	470,331	708,578
	함경북도	701,844	361,317	340,527	69,014	60,302	8,712	105,469	93,770	11,699	38	26	12	527,323	207,219	320,104
일본인	전국	527,016	285,966	241,050	32,714	27,310	5,404	0	0	0	386,979	208,597	178,382	107,323	50,059	57,264
	황해도	17,669	9,195	8,474	1,271	1,076	195	0	0	0	12,053	6,125	5,928	4,345	1,994	2,351
	평안남도	33,891	18,845	15,046	2,277	1,937	340	0	0	0	24,791	13,707	11,084	6,823	3,201	3,622
	평안북도	20,063	11,286	8,777	2,513	2,220	293	0	0	0	13,156	6,944	6,212	4,394	2,122	2,272
	함경남도	39,247	22,999	16,248	2,210	1,907	303	0	0	0	29,123	17,318	11,805	7,914	3,774	4,140
	함경북도	35,279	22,414	12,865	1,812	1,559	253	0	0	0	27,248	17,971	9,277	6,219	2,884	3,335

주: 1) '읽고 쓰는 정도'는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의 기입에 따른 것이며 시험 결과가 아님.
2) 0~5세 인구를 포함한 전 연령 기준임.
자료: 조선총독부, 『소화5년(1930년) 조선국세조사보고 전선편 제1권 결과표』를 저자 재구성, pp.72~73.

〈표 2〉 1930년 국세조사 문해 정도별 인구 구성비 및 성비 - 전국, 이북 5개 도

(단위: 명)

구분	지역	총인구(1,000명당)				남성 인구(1,000명당)				여성 인구(1,000명당)				남성 인구(여성 100명당)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모두 불가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모두 불가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모두 불가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모두 불가
전체	전국	67.5	150.0	18.8	763.7	113.7	237.3	20.1	628.9	19.2	58.8	17.5	904.5	620.10	421.71	120.06	72.71
	황해도	61.1	184.4	8.3	746.2	104.6	316.1	8.6	570.7	16.7	49.9	8.0	925.4	641.00	646.34	110.77	62.96
	평안남도	91.2	201.5	19.1	688.2	153.0	329.8	21.1	496.1	28.0	70.4	17.1	884.5	559.33	479.24	126.25	57.34
	평안북도	71.4	191.0	8.9	728.7	123.7	322.2	9.6	544.5	16.5	53.3	8.2	922.0	785.11	633.84	122.39	61.97
	함경남도	82.6	139.9	19.0	758.5	140.9	246.5	22.0	590.6	19.9	25.2	15.7	939.2	761.46	1,053.44	150.88	67.67
	함경북도	95.1	141.8	36.8	726.3	158.5	240.6	46.4	554.5	25.3	33.0	26.2	915.5	690.10	802.62	195.02	66.69
조선인	전국	67.9	154.4	0.3	777.4	115.0	245.3	0.5	639.2	19.1	60.3	0.1	920.5	623.24	421.44	413.20	71.93
	황해도	61.2	187.2	0.4	751.2	105.2	321.9	0.6	572.3	16.6	50.6	0.1	932.7	642.26	645.96	581.25	62.25
	평안남도	92.4	208.0	0.4	699.2	156.2	342.7	0.6	500.5	28.2	72.1	0.3	899.4	558.92	479.17	228.48	56.09
	평안북도	71.7	196.2	0.3	731.8	125.6	334.4	0.6	539.4	16.4	54.2	0.1	929.3	785.27	633.36	590.79	59.66
	함경남도	83.8	144.2	0.4	771.6	144.2	256.3	0.7	598.8	20.0	25.7	0.2	954.1	763.72	1,052.36	380.00	66.38
	함경북도	98.3	150.3	0.1	751.3	166.9	259.5	0.1	573.5	25.6	34.4	0.0	940.0	692.17	801.52	216.67	64.73
일본인	전국	62.1	0.0	734.3	203.6	95.5	0.0	729.4	175.1	22.4	0.0	740.0	237.6	505.37	—	116.94	87.42
	황해도	71.9	0.0	682.2	245.9	117.0	0.0	666.1	216.9	23.0	0.0	699.6	277.4	551.79	—	103.32	84.81
	평안남도	67.2	0.0	731.5	201.3	102.8	0.0	727.3	169.9	22.6	0.0	736.7	240.7	569.71	—	123.66	88.38
	평안북도	125.3	0.0	655.7	219.0	196.7	0.0	615.3	188.0	33.4	0.0	707.7	258.9	757.68	—	111.78	93.40
	함경남도	56.3	0.0	742.1	201.6	82.9	0.0	753.0	164.1	18.6	0.0	726.6	254.8	629.37	—	146.70	91.16
	함경북도	51.4	0.0	772.3	176.3	69.6	0.0	801.7	128.7	19.7	0.0	721.1	259.2	616.21	—	193.72	86.48

주: 0~5세 인구를 포함한 전 연령 기준임.
자료: 조선총독부, 『소화5년(1930년) 조선국세조사보고 전선편 제1권 결과표』를 저자 재구성, pp.74~75.

〈표 3〉 1930년 국세조사 조선인 문해 정도 및 연령별 인구 - 전국, 황해도, 평안남도

(단위: 명)

성별	연령	전국					황해도					평안남도				
		총인구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둘 다 불가(비문해)	총인구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둘 다 불가(비문해)	총인구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둘 다 불가(비문해)
전체	총인구	20,438,108	1,387,276	3,156,408	6,297	15,888,127	1,499,643	91,795	280,743	545	1,126,560	1,288,804	119,133	268,032	542	901,097
	0~5세	3,855,587	0	0	0	3,855,587	272,996	0	0	0	272,996	242,828	0	0	0	242,828
	6세 이상	16,582,521	1,387,276	3,156,408	6,297	12,032,540	1,226,647	91,795	280,743	545	853,564	1,045,976	119,133	268,032	542	658,269
남성	총인구	10,398,889	1,195,461	2,551,077	5,070	6,647,281	755,210	79,428	243,108	465	432,209	646,987	101,053	221,753	377	323,804
	0~5세	1,952,998	0	0	0	1,952,998	138,121	0	0	0	138,121	121,950	0	0	0	121,950
	6세 이상	8,445,891	1,195,461	2,551,077	5,070	4,694,283	617,089	79,428	243,108	465	294,088	525,037	101,053	221,753	377	201,854
여성	총인구	10,039,219	191,815	605,331	1,227	9,240,846	744,433	12,367	37,635	80	694,351	641,817	18,080	46,279	165	577,293
	0~5세	1,902,589	0	0	0	1,902,589	134,875	0	0	0	134,875	120,878	0	0	0	120,878
	6세 이상	8,136,630	191,815	605,331	1,227	7,338,257	609,558	12,367	37,635	80	559,476	520,939	18,080	46,279	165	456,415

주: 0~5세 인구는 모두 '둘 다 불가(비문해)'로 분류되어 있음.
자료: 조선총독부, 『소화5년(1930년) 조선국세조사보고 전선편 제1권 결과표』를 저자 재구성, pp.96~101.

〈표 4〉 1930년 국세조사 조선인 문해 정도 및 연령별 인구 -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단위: 명)

성별	연령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총인구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둘 다 불가(비문해)	총인구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둘 다 불가(비문해)	총인구	한글·일본어 모두 가능	한글만 가능	일본어만 가능	둘 다 불가(비문해)
전체	총인구	1,519,037	108,968	298,068	525	1,111,476	1,527,975	128,029	220,365	672	1,178,909	701,844	69,014	105,469	38	527,323
	0~5세	293,905	0	0	0	293,905	292,547	0	0	0	292,547	133,802	0	0	0	133,802
	6세 이상	1,225,132	108,968	298,068	525	817,571	1,235,428	128,029	220,365	672	886,362	568,042	69,014	105,469	38	393,521
남성	총인구	769,836	96,659	257,424	449	415,304	785,311	113,206	201,242	532	470,331	361,317	60,302	93,770	26	207,219
	0~5세	146,686	0	0	0	146,686	146,943	0	0	0	146,943	67,110	0	0	0	67,110
	6세 이상	623,150	96,659	257,424	449	268,618	638,368	113,206	201,242	532	323,388	294,207	60,302	93,770	26	140,109
여성	총인구	749,201	12,309	40,644	76	696,172	742,664	14,823	19,123	140	708,578	340,527	8,712	11,699	12	320,104
	0~5세	147,219	0	0	0	147,219	145,604	0	0	0	145,604	66,692	0	0	0	66,692
	6세 이상	601,982	12,309	40,644	76	548,953	597,060	14,823	19,123	140	562,974	273,835	8,712	11,699	12	253,412

주: 0~5세 인구는 모두 '둘 다 불가(비문해)'로 분류되어 있음.
자료: 조선총독부, 『소화5년(1930년) 조선국세조사보고 전선편 제1권 결과표』를 저자 재구성, pp.96~101.

Ⅱ. 해방 이후 최근까지 북한 지역 문해 통계

1. 해방 직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

해방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이 2008년 유네스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5]는, 1945년 8월 이북 지역의 50세 미만 비문해자가 230만 명 이상이었고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그중 약 81.3%가 여성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환(2023)에 따르면 이 수치는 해방 시점에 일괄 조사된 결과가 아니라,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된 1946년 12월~1949년 3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재조사를 거쳐 사후적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또한 이 수치는 당시 북한의 비문해자 전체가 아니라, 노동 가능 연령을 고려한 만 12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것이었다. 1946년 12월 기준 북한의 50세 이상 인구는 112만 254명이었는데, 이주환(2023)은 이들 대다수가 비문해자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시 12세 이상 전체 비문해자가 34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946년부터 1949년 3월 말까지 257만 2,971명의 문맹자를 퇴치하여 북한 전역에서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해 교육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어졌다. 1948년 4월 설치된 속성성인학교에는 전쟁 전 한글학교의 역할을 이어받은 문맹퇴치용 한글반이 운영되었고, 1955년 동기성인교육 기간에는 북한 지역 농촌과 직장 등에 7,800여 개의 속성성인학교가 개교하였으며, 35만여 명의 성인들이 지식 정도에 따라 각각 한글반, 고급반 등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

〈표 5〉 북한의 1946~1949년 한글학교 및 문맹 퇴치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한글학교 수	문맹 퇴치자 수
1946년	16,178	320,000
1947년	66,827	848,865
1948년	89,939	1,210,268
1949 년	19,557	193,838
누계	192,501	2,572,971

주: 1949년도는 1/4분기 실적만 포함함.
자료: 『교원신문』, 1949. 8. 25, 2면; 이주환(2023), p.162, 〈표 3-10〉에서 재인용.

5) DPRK(2008).

2.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문해 통계

이 시기 북한의 문해 수준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로는 2008년 인구센서스, 2014년 SDHS, 2017년 MICS가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6]는 북한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이 1993년에 이어 15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조사원은 가구 응답자를 면접하여 5세 이상 가구원 각각에 대해 "간단한 메시지를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가"를 묻고 "예" 또는 "아니오"로 기록하였으나, 결과표는 10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집계하였다. 이 조사는 '문해'를 "어떤 언어로든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인구 2,049만 5,407명 가운데 비문해자는 326명(남성 94명, 여성 232명)이었고, 문해율은 약 99.998%로 나타났다.[7] 해방 당시 약 230만 명으로 기술된 비문해자 인구가, 대상 연령 기준은 다르지만 60여 년 후의 공식 통계에서는 326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남아 있는 비문해자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326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251명(약 77.0%)이고, 80세 이상만 165명(약 50.6%)이다. 2008년 기준 80세 이상인 인구는 1945년 해방 당시 10대 후반 이상이었던 세대로, 문맹퇴치운동의 대상 연령(만 12~50세)에 속하던 인구이기도 하다. 둘째, 여성이 232명(약 71.2%)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196명, 남성 55명으로 차이가 더 크다. 셋째, 농촌 거주자(208명)가 도시 거주자(118명)보다 많다. 이러한 구성은 앞서 서술한 해방 당시 비문해자의 다수가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문맹퇴치 선언 이후에도 기초 문해교육 수요가 남아 있었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두 시점 사이에는 60여 년의 간격이 있고 집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같은 집단이 이어진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표 6〉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북한의 연령대별 비문해자 및 무학 인구

(단위: 명, %)

연령(구간)	인구	비문해자			인구 10만 명당 비문해자	무학 인구	무학 비율
		남성	여성	합계			
10~59세	17,340,496	34	29	63	0.4	1,616	0.01
60~69세	1,971,567	5	7	12	0.6	9,475	0.48
70~79세	998,094	21	65	86	8.6	36,971	3.70
80세 이상	185,250	34	131	165	89.1	24,220	13.07
합계	20,495,407	94	232	326	1.6	72,282	0.35

주: 무학 인구는 최종학력이 '없음(None)'으로 분류된 인구, 무학 비율은 무학 인구를 해당 연령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DPRK(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를 저자 가공.

6) DPRK(2009).
7) DPRK(2009), 문해율은 저자 계산.

같은 센서스의 학력 통계를 보여주는 〈표 6〉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다. 1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정규 학력이 없는 무학 인구는 7만 2,282명이며, 이 중 7만 666명(약 97.8%)이 60세 이상이다. 10세 이상 비문해자는 모두 합쳐 326명이므로, 비문해자가 모두 무학 인구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무학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99.5%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어 2014년에는 북한 중앙통계국과 UNFPA가 공동으로 사회경제·인구·건강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SDHS)[8]를 실시하였다. 2008년 센서스와 달리 전국 도시와 농촌에서 1만 3,250가구를 선별하여 조사한 뒤 전체 인구를 추정한 표본 조사이며, 2008년 센서스 조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같은 문항과 문해 정의를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인구 2,084만 8,263명 가운데 문해자는 2,084만 5,564명으로 문해율은 약 99.987%였다. 도시 약 99.992%, 농촌 약 99.979%, 남성 약 99.986%, 여성 약 99.988%로 집단 간 차이는 약 0.02%p 이내였다. 이에 따르면 비문해자는 2,699명으로 추정되어 2008년 센서스의 326명보다 많다.[9] SDHS는 교육 참여 현황도 보여주고 있다. 5~9세 취학률은 약 96.7%, 10~14세 취학률은 약 99.8%로 거의 보편적이지만, 15~19세에서는 약 62.6%, 20~24세에서는 약 15.7%로 낮아진다. 30~59세 인구의 최종학력은 고급중학교가 약 75.0%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은 약 13.9%이다. 보고서는 의무교육을 마친 뒤 대부분의 인구가 교육 체계를 벗어나며, 상급 교육을 이어가는 사람은 도시 지역 일부 남성에 한정되고 성별 격차가 크다고 설명한다.

2017년에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니세프(UNICEF)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아 복합지표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10]를 실시하고 2018년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조사구역 34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구역마다 25가구씩 추출하여, 총 8,500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MICS에서 정의하는 문해율은 15~24세 가운데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거나 중등학교 이상(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secondary education or higher education)을 다닌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 결과 15~24세 인구의 문해율은 100.0%였다. 다만 이 수치는 읽기 시험의 결과라기보다 학력에 따른 분류에 가깝다. 중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다닌 응답자는 문장을 읽게 하지 않고 곧바로 문해자로 분류하였는데, 15~49세 여성(8,763명)은 고급중학교 학력이 약 80.1%, 대학 이상 학력이 약 19.9%였고, 남성(4,179명)은 모두 중등학교 이상의 참여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읽기 질문이 적용되지

8) DPRK(2015).
9) 2008년 센서스의 326명은 전수조사 집계치이고, SDHS의 2,699명은 13,250가구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다.
10) DPRK·UNICEF(2018).

않았다. 반면, 7~14세 아동에게는 읽기를 직접 평가하였다. 아동이 짧은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은 뒤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하게 하였으며, 이야기의 단어 90% 이상을 정확히 읽고 사실 확인 질문 3개와 추론 질문 2개에 정확히 답한 경우를 '기초 이해 능력'을 갖춘 것으로 집계하였다. 그 결과 7~14세 아동의 약 94.8%가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연령별로는 7세 약 83.5%에서 12세 약 97.8%까지 높아졌고 13~14세는 약 97% 수준이었다. 도별로는 함경남도(약 99.7%)가 가장 높고 평안북도(약 89.0%)가 가장 낮아 약 10.7%p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공식 통계상 문해는 사실상 보편적이며 성인 대다수는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해 조사에 사용되는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일상생활이나 작업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문해 능력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표 7〉과 같이 조사마다 문해를 확인한 방식이 달라, 2008년 센서스와 2014년 SDHS는 응답자의 답변을, 2017년 MICS는 성인의 경우 주로 학력을 근거로, 아동은 읽기 능력을 기준으로 문해 여부를 판정하였다. 읽기 평가 결과가 보고된 것은 사실상 7~14세 아동뿐이며, 그 결과(약 94.8%)는 세 조사의 문해율(약 99.998%, 약 99.987%, 100.0%)과 대상 및 측정 방식이 다른 수치이다. MICS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보고서의 집계표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 조사를 하나의 시계열로 이어 비교하기는 어렵고, 실제 문해 능력을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자료 혹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표 7〉 조사별 문해 확인 방식

조사	유형	문해를 확인한 방식
2008 인구센서스	센서스	응답자 답변 ("간단한 메시지를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가", 예/아니오)
2014 SDHS	표본조사(13,250가구)	센서스와 같은 문항·정의, 응답자 답변
2017 MICS (성인)	표본조사(8,500가구)	중등학교 이상을 다닌 적 있으면 곧바로 문해자로 분류, 그 외는 문장 읽기 질문
2017 MICS (아동)	상동	짧은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고 질문에 답하는 직접 평가

자료: DPRK(2009), DPRK(2015), DPRK·UNICEF(2018)를 저자 정리.

참고문헌

국문문헌

양진아, 「일제강점기 국세조사(國勢調査) 법령의 체계와 특징」,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원청연, 「역사자료를 활용한 북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6.

이주환, 「북한의 문맹퇴치운동과 성인교육체계 형성(1945~1949)」,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해외문헌

朝鮮總督府,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第一卷 結果表』, 1930.

_____,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第二卷 記述報文』, 1930.

Becker, Sascha O. and Cheongyeon Won, "Conquering Korea for Jesus: Protestant Missionaries, Local Churches, and Literacy in Colonial Korea," *Labour Economics*, Vol. 91, 2024.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2009.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2018.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FP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2015.

DPRK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Commission of DPR of Korea for UNESCO, *National Report on the Development and State of the Art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8.